

# 마침내 혁명의 기운이 움트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9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당대 지배계급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구르당 부인의 편지》는 혁명전야 금서의 사회적 역할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표면적으로는 성적 일탈행위를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적 가치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적 사상이 담겨 있다. 혁명은 어느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체제수호자들의 검열장치를 교묘히 피해 출간된 각종 책들이 견고한 '중세의 성'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당신 집에 갔을 때 10루이를 주고 들어간 규방에서 작은 병을 본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가씨에게 그 병에 든 연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 거짓말쟁이 아가씨 말이 그건 입술 트는 데 바르는 연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입술이 말라서 터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 집에서 나설 때 웬다구나 하고 입술에 그걸 발랐습니다. 내 생각에 한밤 자고 나면 입술이 부드럽게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 입술이 더욱 당기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고 게다가 아프기까지 합니다. 얼굴이 흉칙하게 변했어요...

나는 의사를 만나 볼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괴물 같은 내 물골을 보고 속으로 웃을 게 뻔한니까요. 내 입술을 고치는 방법을 빨리 알려주세요. 당신은 내가 이런 꼴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만 고쳐주면 다른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해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규범과 신분질서 풍자해

《구르당 부인의 편지》에 실린 원장 신부 Q의 편지다. 1783년에 나온 이 책은 다양한 사람이 1760

년대 중반부터 1770년대 초반까지 파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포주 구르당 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실고 있다. 원장 신부의 편지를 보면, 무엇보다도 그가 거물급 손님답게 10루이를 주고 창녀와 놀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돈으로 200프랑 이니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8천프랑이다. 우리 돈 135만원 정도를 하룻밤 화대로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창녀가 손님에게 더 훌륭하게 봉사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 바르는 수렴성 연고를 입술에 바른 뒤 얼굴이 흉칙하게 변했다. 게다가 그의 푸념에 따르면, 그가 이미 이 집에서 성병에 걸린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에 노골적인 성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당시의 독자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신분사회에서 제1신분을 차지하는 성직자의 위선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을지 모른다. 노동자의 하루벌이가 우리 돈으로 만원도 안되던 시절, 하룻밤 놀이에 135만원을 쓰는 성직자를 어찌 생각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편지를 실었을까? 신부와 창녀의 물질적인 평등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거룩한 말만 하도록 돼 있는 신부의 입과 창녀의 생활수단인

‘입’의 평등함이며. 또한 저자는 창녀에게 이로운 연고를 신부가 사용해 벌을 받은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삭여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을까?

“사실 어젯 밤에는 참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분은 저를 훌쩍 벗겨 놓고 자기도 벗고 나서 네 발로 땅에 엎드려 저를 태우고 방안을 돌았어요. 저는 거꾸로 앉아서 말을 탔죠. 그 분이 방안을 도는 사이 저는 그분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했어요. 한시간 반쯤 그렇게 놀았어요. 방안에 달린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참으로 남자들이란 묘한 취미를 가졌어요.”

같은 책에 실린 쥘리라는 창녀의 편지다. 매춘의 세계에서는 신분의 귀천이 따로 없고, 성적 능력만이 중요한 기준이다. 늙은이는 성적 무능을 보상이라도 하듯 창녀를 태우고 영금영금 기어다닌다. 사람의 몸과 관련된 상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제도화됐던 앙시앵 레짐 사회에서 걸모양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웃은 성적 분별,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을 담고 있었다. 서열화된 전통적 가치의 상징인 옷을 벗어버린 쥘리와 늙은 징세관의 놀이는 이런 의미에서 반(反)문화적인 놀이었다. 더욱이 쥘리는 징세관의 등에 거꾸로 앉아서 그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면서 놀았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치안당국이 창녀에게 내리던 벌이 어떤 것인지 안다. 예를 들어, 구르당 부인은 1775년 쥘석재판에서 나귀(âne) 등에 거꾸로 실린 채 시내를 한바퀴 돌고, 9년 동안 파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현실세계에서 말을 거꾸로 탄다는 것은 창녀에게는 지독히 수치스러운 벌을 뜻했음을 당대의 독자는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모욕적인 벌을 놀이로 응용하는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독자는 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이처럼 성적인 내용인 듯 보이지만, 체제전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프랑스 혁명 전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 금서 속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비웃고, 신분사회의 기초를 뒤집어 엮는 내용을 보는 체제수호자들의 심정은 어땠겠는가?

### 책으로 연 혁명의 시대

혁명 전의 사회에서 여론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인 가운데 17세기말에 태어난 몽테스키외와 볼테르를 계몽사상이 1세대라고 한다면, 1710년대에 태어난 루소·디드로·달랑베르를 2세대, 1740년대에 태어난 콩도르세나 미라보 백작을 3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든 양식의 글을 쓰면서 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기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는 데는 몽테스키외, 제한적인 민주공화제를 수립하는 데는 볼테르, 좀더 적극적인 민주공화제를 수립하는 데는 루소가 각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문인과 문학지망생들이 '정치적 온도'가 올라갈 때 더욱 많이 발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저마다 전문분야가 있었으며, 카페나 선술집, 또는 공원의 나무 밑에 사람들을 모았다. 예를 들어, '크라코프의 나무'는 1740년대 말에 사람을 모으던 나무였다. 이 나무는 파리 중심부인 팔레 루아얄의 정원에 있던 커다란 밤나무였다. 1733년부터 1735년까지 있었던 폴란드 왕위계승 전쟁 때,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보인다. 공식적으로 신문이 존재하지 못하던 시절에도 수많은 이야기꾼, 수기신문 발행인, 문인 지망생이 저마다 소식을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하든지, 아니면 관계 당국의 눈을 피하면서 글을 퍼뜨렸고, 저자나 출판인은 쓸 만한 글을 모아 다량으로 인쇄해 퍼뜨렸다.

여론을 이끌던 다른 부류는 법조계 인사였다. 혁명 전에는 관계 당국이 인쇄 전, 중간, 후에 개입하면서 체제에 위협한 글을 걸러내는 검열제도를 운영했지만,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검열을 받지 않고 글을 쓰고, 인쇄할 수 있었다. 1785년에 일어난 '목걸이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자칭 발루아 가문의 후예라는 마담 라 모트는 남편과 짜고 스트라스부르 주교이며 왕실 사제장인 로앙 추기경에게 사기를 쳤다. 무려 160만리브르짜리 (오늘날 가치로 바꾸면 6,400만프랑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왕비에게 선물하라고 부추긴 뒤, 목걸이를 가로챘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다. 변호사들은 저마다 자기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마구 뿌렸다. 그 결과 왕비의 모습이 심하게 왜곡된 것은 물론, 왕실의 권위가 참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쓴 《파리의 치마 밑》(소나무, 189쪽 이하)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앙 추기경과 관련자들을 체포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아홉 달

이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피고를 위해 쓴 변론서가 시중에 널리 유포돼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사실, 1670년의 칙령에서 규정했듯, 범죄사건의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변호사의 변론서는 판사만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변호사의 글은 따로 검열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에 변호사들은 피고에 대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에서 변론서를 공개했고, 사람들은 앞다퉈 그것을 얻거나 사서 읽었다.

18세기에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1770년, 슈아펠 공작이 실각하고, 대법관 모푸, 재무총감 테레 신부, 외무대신 에귀용 공작이 '3두정'을 펴면서 1771년 파리 고등법원을 혁파하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3두정'을 후원하는 마담 뒤 바리에 대한 추문을 중심으로 루이 15세와 대신들의 '전제정'을 공격하는 팸플릿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런 팸플릿은 독자의 막연한 증오를 더욱 뚜렷한 증오로 바꿔주는 데 도움을 줬음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책 때문에 변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 무능과 경제적 과탄이 함께 작용했고, 언론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에서 불만을 이용해 글을 뿌리는 사람들이 제 세상을 만났다. 이것이 혁명의 시작이었다. ●